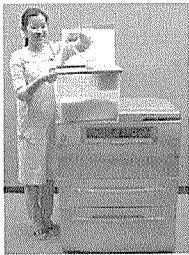


● 쌀저장 김치냉장고 '진품(眞品)'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장기형 <http://www.dwe.co.kr>)가 김치는 물론 쌀을 햅쌀처럼 맛있고 신선하게 장기간 보관토록 하는 쌀저장 김치냉장고 '진품(眞品)'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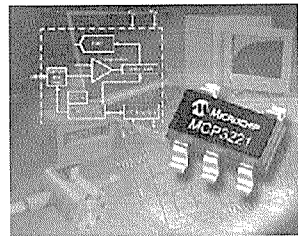
이 제품은 쌀보관에 가장 적합한 10도의 온도와 50~70%의 상대습도를 유지시켜 쌀에 함유돼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줘 언제나 조리후 윤기있는 햅쌀맛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쌀, 잡곡, 방충제를 넣는 칸이 각각 분리돼 쌀은 27~39kg까지, 잡곡은 3kg까지 저장가능하고 직접냉각방식을 사용해 김치맛을 살려줄 수 있다. 또한 '쌀림실'은 냉동식품의 신선도 파괴를 최대한 줄이는 온도(영하 7도)를 유지, 김치 외에 냉동식품을 저장할 때 세포파괴를 막아 영양분을 최대한 유지하며 고기 등을 해동하지 않고 바로 '썰어서'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전력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출시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대표 한병돈)는 소형 SOT-23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12비트 저전력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모델명 MCP3221)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소형 SOT-23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것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신호측정시 폭넓은 범위를 제공하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 구동제품과 저전력형 제품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12비트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중에서 전력소모가 가장 작아 이동전화 등 모바일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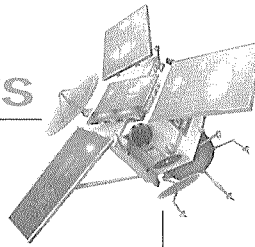
● 시스템 튜닝SW "프로튠" 개발

머큐리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솔루션 업체인 머큐리인터랙티브코리아(대표 신임하)는 기업의 IT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조율해주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튜닝소프트웨어 '프로튠(ProTune)'을 개발했다.

회사는 이 제품을 선보임에 따라 사업영역을 기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모니터링 솔루션 분야에서 튜닝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프로튠은 기업 IT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하게 해주는 업계 최초의 튜닝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여 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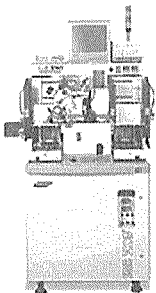


유비용(TCO)을 절감해 준다.

이 제품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체현상을 사전에 조사해 문제지점이 확인되면 시스템을 정밀튜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신임하 사장은 “기업들이 최근 IT 분야 비용절감과 ROI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기존 시스템 최적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프로튠은 기업의 IT비용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선 적용 와이어본더 개발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대표 이중구 <http://www.samsungtechwin.com>)은 최근 반도체 조립라인의 핵심장비인 구리선(copper wire)을 적용한 와이어본더(모델명 SWB 700D+)를 개발했다.

와이어본더는 웨이퍼에서 분리된 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을 미세한 금속선으로 접합, 전기적 신호가 통하도록 해주는 반도체 조립장비다.

그동안 금속선으로는 금선(gold wire)이 주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금선에 비해 생산원가를 3분의 1~1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고 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구리선으로 전환되는 추세

다. 특히 'SWB 700D+'는 구리선을 구리 리드프레임에 바로 접합할 수 없어 리드프레임에 은도금을 추가해야 했던 종전 구리선 와이어본더와는 달리 구리선과 구리 리드프레임을 직접 접합하는 기술을 적용, 생산비 절감효과가 탁월하다.

또 구리선의 산화방지를 위해 리드프레임 이송부분을 터널 형태로 설계하는 등 자동가스제어시스템과 본딩용 불 생성시 불의 경화 및 산화방지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내장했다.

삼성테크윈은 최근 이 장비를 세계 5대 소자업체 중 한곳에 공급, 양산공정에서 성능이 검증됨에 따라 연간 500대 규모인 구리선용 와이어본더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HXA 시리즈 개발

삼영전자

삼영전자(대표 변동준 <http://www.samyong.co.kr>)는 기존 제품보다 사용온도 범위가 광범위한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HXA' 시리즈를 발표했다.

영하 55도~영상 105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HXA' 시리즈는 제품 높이가 7mm에 불과한 소형이며 안정화된 박(foil)과 저등가직렬저항치(ESR)전해지·저저항전해액 등을 채택, 고주파(100kHz)에서도 저임피던스를 실현할 수 있는 레디얼리드(radial lead) 타입 제품이다.

이 시리즈는 또 고주파·저임피던스 특성이 요구되는 DV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발광회로, DC-DC 컨버터 등의 회로에 적합하도록 사용전압 6.3~35V △정격용량 6.8~100μF △보증시간

영상 105도에 1000시간 등의 성능을 지원한다.



스캔소프트 제휴, 음성언어 사업 공동진출

시스윌-미

음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인 시스윌(www.syswill.com 대표 김연수)은 미국의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개발업체인 스캔소프트(www.scansoft.com)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음성언어 사업분야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김연수 시스윌 사장, 피터 하우스저 스캔소프트 부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양사는 한국내의 음성언어 사업분야에서 공동 솔루션 개발 및 공동 마케팅에 동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시스윌은 국내에서 음성언어 사업분야인 음성인식 솔루션과 음성합성 솔루션 영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1월 음성인식 및 합성 소프트웨어 회사인 L&H를 인수한 스캔소프트는 자사 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스윌은 스캔소프트의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솔루션을 적용해 멀티미디어 및 임베디드 시장을 포함한 음성 인터페이스의 전 분야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편, 스캔소프트는 지난해 5월 분식회계 등

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L&H 코리아 관련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 이용돼온 것으로 보고 있어 스캔소프트의 한국 진출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터 하우스저 스캔소프트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으로 제품을 유통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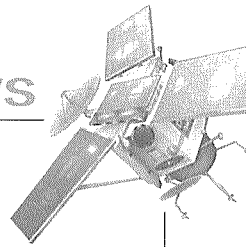
3차원 X선 검사장비 신제품 개발

엠펙스엑스선



엑스선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엠펙스엑스선(대표 전영배 <http://www.amfis.com>)은 기능이 개선된 3차원 엑스선 검사장비 ‘SM3160’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SM3160’은 검사 부위를 엑스선으로 투영해 대상물의 불량 유무·형태·원인·위치를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엑스선 검사장비다. 특히 이 장비는 기존 엑스선 검사장비로 정밀측정이 어려웠던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비롯해 BGA(Ball Grid Array)나 CSP(Chip Scale Package) 같은 패키지제품, 다층인쇄회로기판·표면실장부품·정밀주조품 등의 내부 접촉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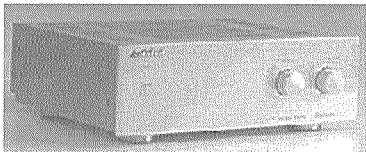


단자간 접합 여부, 단자와 부품간 이격 정도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측정할 수 있다.

또 검사시료의 위치를 레이저 포인트로 지적할 수 있어 위치 표시가 정확하며 2400배의 고배율 확대 기능, 최대 초당 80mm의 수동 및 자동 위치제어 기능, 마우스 컨트롤 기능, 고선명 엑스선 튜브,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모니터 등을 기본으로 내장했다.

새로운 증폭방식 적용한 앰프 개발

오디오필



오디오필(대표 진옥상 <http://www.audiofeel.co.kr>)은 디지털회로에 의해 증폭하는 방식을 채택한 오디오 파워앰프 '하이디오(Highdio) 2010'을 개발했다. 이 제품에는 기존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의 증폭 특성을 이용한 증폭회로와는 달리 디지털회로에 의해 증폭하는 'E급 증폭기(Class E)'를 장착해 혼변조 찌그러짐이 없고 심포니와 같은 대편성곡 감상시 각 악기의 소리를 뚜렷하고 명료하게 재현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혼변조 현상이란 입력된 신호가 출력에 이르는 과정에서 트랜지스터, 진공관 등의 비선형성 소자로 인해 입력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주파수 성분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오디오필측은 자체 설계한 오디오 파워 앰프용 디지털회로를 국

내의 특허 출원중이라고 전했다.

실외기 없는 신개념 공냉식 에어컨 개발

제프로스코리아

실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신개념의 일체형 공기냉각 방식 에어컨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제프로스코리아(대표 성홍경)는 기존 제품에 비해 냉방능력은 뛰어나면서도 냉방병 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공냉식 에어컨인 '제프로스'를 개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제프로스는 에어컨 내부에 실외기를 장착, 외부의 천연공기를 주기적으로 유입해 응축실에서 열교환시킨 후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는 원리를 채택했다.

이같은 일체형 에어컨은 별도의 냉매관 배관 시설이 필요없어 설치와 이동이 쉽다.

기존 에어컨은 벽체 안팎으로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돼 냉매관 배관시설이 별도로 필요한데다 노후화된 배관에서 프레온가스가 누출돼 공기를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프로스는 기존 에어컨의 실외기가 에어컨과 같은 위치에 놓이지 않을 경우 냉방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냉방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18평(60㎡)형 기준으로 기존 에어컨이 6100kcal의 냉방효과를 갖는 데 비해 제프로스는 6500kcal로 냉방효과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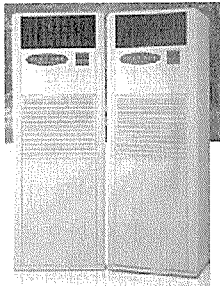
3차원 입체냉각팬과 증발수 처리기술을 활용한 이 제품은 창문의 그릴을 통해 실내외 공

기가 자유자재로 유입되므로 산소부족 현상이 줄어들어 냉방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또 에어컨 안에 공기청정필터와 자외선 살균램프를 장착,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한편 각종 세균의 번식을 막도록 했다.

에어컨 설치비용도 기존 에어컨 설치비용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제프로스코리아는 10평(33㎡)형, 15평(50㎡)형, 20평(66㎡)형, 25평(83㎡)형으로 제품을 다양화했으며 건축주 및 건설업자 등을 위해 맞춤형 개별냉방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홍경 사장은 “냉난방 겸용기와 10평 이하의 소형 이동식 에어컨을 올 가을쯤 출시할 계획”이라며 “기술 및 제품 판매 등 이원화된 전략으로 제품 출하와 동시에 일본·중국·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MP3겸용 휴대용 데이터 이동장치개발

청람디지털

청람디지털(대표 김만식 <http://www.chunglam.com>)은 MP3플레이어 겸용 휴대용 데이터 이동장치(모델명 i셔틀·사진)를 개발·출시했다.

신제품은 MP3플레이어 기능은 물론 콤팩트 플래시카드(CFC)·스마트미디어카드(SMC)·멀티미디어카드(MMC)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카드를 자유롭게 탈착할 수 있는 슬롯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PDA 등 휴대형 디지털 장비의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백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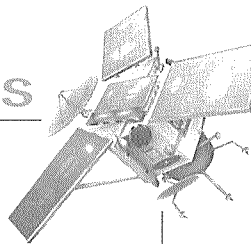
이와 함께 USB포트를 통해 PC와 연결, 대용량의 동영상 파일이나 그래픽 파일을 교환할 수 있고 40Gb HDD 장착 시 1300시간 분량의 MP3 음악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스토리지용 싱글칩 개발

텍산아이엔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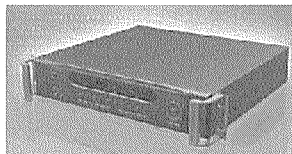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업체인 텍산아이엔씨(대표 김창규 <http://www.techsan.co.kr>)는 자회사인 미국 엔솔로지사와 공동으로 저장장치용 싱글 ASIC칩을 개발했다. 이 칩은 기존 저장장치용에 사용되는 고가의 ‘스카시드라이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기존 스토리지에 사용하면 동일한 기능에 절반 이상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텍산아이엔씨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제품을 독점 생산, 공급하며 국제 마케팅은 엔솔로지가 담당하게 된다. 김창규 사장은 “이번에 개발된 싱글 ASIC칩은 스토리지의 게이트웨이, 허브, RAID스토리지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텍산아이엔씨는 이 제품 양산으로 올해 135억원, 2003년 826억원, 2004년 1945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DVR 신제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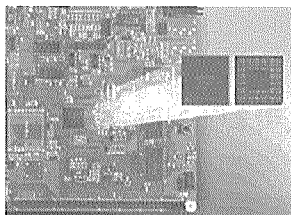
포스데이타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 <http://www.posdata.co.kr>)는 네트워크 기능과 안정성을 강화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신제품 '포스위치프로'를 출시했다.

해외 수출형 모델로 1년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친 포스위치프로는 16대의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16채널 제품으로 압축률이 높은 MPEG4 압축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였다. 또 음성녹음기능과 검색 및 녹화기능을 강화했으며 칩입자를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영숙 포스데이타 DVR사업부장은 "포스데이타는 고급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포스위치프로는 보안장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과 해상도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며 "가격경쟁력이 높은 고품질 저가형 제품과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특수형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수출 국가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박상호 · 우의제 <http://www.hynix.com>)는 블루투스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베이스밴드에 플래시메모리를 내장시킨 임베디드 플래시 베이스밴드칩 '블루웨이브 원(BlueWave1)'을 개발했다.

이 칩은 플래시메모리뿐만 아니라 보이스코덱 · USB · PCMCIA 인터페이스 등 블루투스 응용기기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변기능들을 하나의 칩에 내장시킨 제품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칩과 호환되는 평가보드, ARM 컴파일러 및 디버거, 펌웨어, 프로토콜 스택, 윈도우용 USB 드라이버 등 디자인키트를 함께 제공하는등 고객사들이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또 후속제품으로 베이스밴드와 고주파(RF), 운영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칩에 통합한 시스템온칩(SoC) '블루웨이브Ⅱ'와 '블루웨이브Ⅲ'를 각각 연말과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하이닉스 시스템IC컴퍼니 박성범 수석은 "블루웨이브 시리즈는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 공정을 이용해 RF부문을 집적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ARM 코어를 활용,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프로그래밍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2003년에는 1000억원, 2005년에는 5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캐너스인스탯에 따르면 전세계 블루투스칩시장은 올해 약 6500만개에서 2005년 약 8억개 정도로 예상되고

블루투스 플래시 베이스밴드칩 개발

하이닉스반도체

있다.

ADSL라우터 개발

한국하나통신

통신장비 생산업체인 한국하나통신(대표 박성진)은 최근 4포트 스위칭허브를 내장한 ADSL라우터(모델명 Access One)를 개발, 생산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자동 IP할당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DMZ 가상서버기능을 채택하고 있어 보안기능이 우수하다고 한국하나통신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 IP공유기와 달리 메신저를 이용해 파일송수신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면 ADSL 한개 회선을 이용해 최대 128명에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호 및 PC방 등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한국하나통신은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달부터 월 5000대 규모의 제품을 생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운 저장매체 선보여

후지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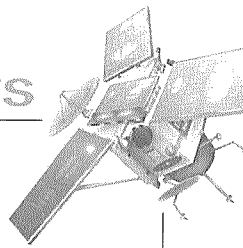
한국후지필름(대표 김영재 <http://www.ujifilm.co.kr>)은 올 하반기부터 일본 후지필름과 올림퍼스에서 공동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저장매체 'xD-픽처카드'를 판매한다. 이 제품은 PC카드 어댑터와 USB 카드리더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PC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며 카드 어댑터를 통해 PDA, 오디오 등 IT 기기의 저장매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콤팩트플래시를

저장매체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그동안 디지털카메라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호환성 문제를 개선했다. 대용량의 디지털 이미지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16~128MB의 저장용량을 갖췄고 오는 11월께 256MB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TRS.VoIP 결합 신상품 공동개발

KT과워텔-NTIT테크놀로지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자인 KT과워텔(www.m0130.com 대표 홍용표)과 VoIP서비스업체인 NTIT 테크놀로지(NTIT: www.ntit.co.kr 대표 오재삼)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TRS서비스와 음성데이터통합(VoIP)을 결합한 신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양사는 이번 공동마케팅 계약에 따라 과워텔의 TRS망과 NTIT의 VoIP서비스를 결합한 신상품 개발은 물론 관련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협력키로 했다. NTIT의 노이진 상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NTIT의 VoIP가입자가 선불카드를 통해 그룹통화 등 TRS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양사는 또 차후 기존 VoIP망과 TRS망을 상호 접속해 TRS통화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TIT는 또 자사의 기존 선불카드 시스템을 제공해 과워텔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 밖에도 TRS음성커뮤니티 사이트 구축·운영은 물론 전화기에 말만하면 음성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TRS 음성인식 차량 이동정보 사업'도 구상중이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여러사람이



동시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TRS 음성 경매 사업 'T-EC'에도 본격 나서는 등 TRS망을 이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키로 했다. NTIT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NTIT는 사업 영역을 넓히는 한편, 파워텔은 TRS폰에 VoIP를 결합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해졌다"며 "가입자 공동 유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개념 현금자동지급기 개발

LG엔시스

LG엔시스(대표 박계현)는 신개념 현금자동지급기인 'ezCD'(모델 GCD30000)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최근 은행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과금의 지로수납 기능과 모바일IT를 접목시킨 휴대전화 바코드인식시스템, 생체인식방식인 지문인식시스템, 교통카드와 전자금융에 대비한 RF카드시스템등 첨단기능을 탑재했다.

또 현금·수표처리 속도개선으로 고객 대기시간을 줄였고 각종 멀티미디어기능도 추가했다. 박계현 사장은 "시장환경 변화에 맞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만들기 위해 은행고객과 행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요구사항을 파악했다"며 "LCD 화면각도, 출금, 카드투입구 위치, 거치대, 비밀번호 보안 등을 인체구조학상으로 분석, 설계했다"고 말했다.

● 소형 NAS 발표

한국IBM

한국IBM이 일체형 스토리지 NAS 소형 제품을 발표했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자율관리 및 자가치유 기능을 갖춘 소형 디스크 'NAS100·사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 솔루션의 공급을 시작한다. 크기가 작고 얇아 일명 '피자박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7200 RPM 하드디스크를 채용했고 파워 윈도우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닛당 480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시스템 작동 중단 없이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는 핫스왑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제공한다.

또한 'IBM 디렉터 3.1 에이전트'라는 관리 솔루션도 제공한다. 특히 이 SW는 NAS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발생을 미리 예견해 대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호출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등 자율컴퓨팅 기술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IBM은 지난해부터 NAS 장비의 공급을 시작해 이제까지 'NAS200' 'NAS300' 등 중형 모델을 공급해왔으며 소형 모델의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석균 실장은 "이번 소형 NAS 출시로 한국IBM은 중소 및 대형 고객을 위해 NAS에서부터 SAN에 이르는 오픈 스탠더드 기반의 다양한 스토리지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이 제품 시판을 기념해 10월까지 480Gb의 NAS100 신제품을 500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